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론의 발전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신열 (백석대학교)

요약문

‘성령세례’라는 독창적인 교리를 창출한 오순절 운동은 신학은 자연스럽게 성령론이 특별히 강조되는 신학으로 발전되어왔다. 본 논문은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신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져 왔던 신론 (the doctrine of God)의 발전 과정을 비판적 입장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경우 초기에 대표적 신학자인 펄만 (Pearlman), 그리고 멘시스 (Menzies), 그리고 국제사중복음교회의 두필드/반 클리브 (Duffield/Van Cleave)의 신론을 중심으로 신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오순절 운동이 자신들만의 영역을 탈피하여 기존의 교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전통적 교단 속으로 파고들어가면서 발생하게 된 은사주의 운동의 경우 그 대표적 신학자인 윌리엄스 (Williams)를 택하여 그의 신론을 살펴보았다. 고전적 오순절 운동은 평이한 신학, 즉 논쟁이 결여된 가운데 신학에 임하는 태도로 인하여 그들이 원래 지녔던 신학적 특징을 견지하는 가운데 그들의 성령론적 특징을 신론에 적용하지 못하는 신학을 전개하였다면 은사주의 운동은 윌리엄스의 경우에 드러나듯이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독자적 성격에 대한 강조가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서방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인 필리오케 (filioque)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1. 들어가는 말

오순절 운동은 1901년 찰스 파함 (Charles Parham)의 베델 성경학교 (Bethel Bible School)에서 일어났던 성령세례의 체험이 윌리엄 시모어 (William Seymour)를 중심으로 1906년 로스엔젤레스의 아주사 부흥운동 (Azusa Street Revival)으로 연결되면서 20세기 세계 기독교 갱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오순절 운동과 그 신학에 있어서 성령론의 중요성은 이전의 구원론적 차원을 넘어서서 ‘성령세례’라는 새로운 교리를 탄생시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60년에 이르러 오순절 운동이 자신들만의 교단적 테두리를 벗어나 기존의 전통적 교회들로 그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함에 따라 성령론에 대한 관심이 기독교 전반에 걸쳐 크게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오순절 운동은 꾸준히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기존의 전통교회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게 된 은사주의 운동 (the charismatic renewal movement)으로 그 모습을 갱신함으로써 기독교 내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이 지닌 여러 형태의 취약점들을 지적하고 있다.¹⁾ 즉 성령세례의 가시적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로 성령론을 제외한 다른 교리에서의 결함이 지적되고 있다. 영국에서 은사주의 운동의 리더역할을 담당해 왔던 톰 스메일 (Tom Smail)은 은사주의 운동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신학적 결함은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였다.²⁾ 성령

1) J. I. Packer,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Grand Rapids: Fleming H. Revell, 1984), 191-9.

2) Tom Smail, *The Forgotten Father: Rediscovering the Heart of the Christian Gospel* (London: Paternoster, 1980),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은 삼위일체론적으로 살펴볼 때 성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순절 신학의 독창적 교리인 ‘성령세례’ 또한 그 신론적 기초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교리적 체계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없음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에 대한 올바르고 균형잡힌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오순절 신학에 있어서 신론 (the doctrine of God)이 차지하는 위치를 먼저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오순절 운동 및 은사주의 운동이 추구하는 신학적 정체성이 기존의 전통 교회들이 지닌 신론의 모습들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가를 아울러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2.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신학적 특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은 그 특징상 신학적으로 정의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그 뿌리와 출발에 있어서 감리교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음이 분명한 사실이다.³⁾ 이를 통하여 개인의 체험에 근거한 신앙의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었지만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방언이라는 성령세례의 초기증거로 단일화하는 경향이 1930년대 이전까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오순절 운동이 은사주의 운동으로 변화해나갔던 거의 1세기를 포괄하는 기간동안에 이 운동은 체험의 교리적 해석에 있어서 더욱 다양화되어졌으며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와 맞물려 더욱 탈교리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신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체험과 신앙의 일치성을 우선시하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영론적 (pneumatic hermeneutics) 특징을 들 수 있다. 신앙의 신적 측면보다는 신앙이 지닌 실존론적(existential) 차원이 더 강조되어 이를 어떻게 인간적 경험으로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경의 문자적 (literal) 해석의 참된 의미를 영론적 (pneumatic) 해석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성령 체험이 감각적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영론적 인식론 (pneumatic epistemology)에 근거하는 해석학적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⁴⁾ 해석학의 이러한 영론적 접근은 고등 성경비평에서 비롯된 신앙과 이성 사이에 상존하는 괴리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영론적 접근의 결과로 신앙은 인간 이성의 잘못된 판단을 수정할 수 있으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덧입은 성경 저자의 진정한 영적 의도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영론적 해석학의 특징은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서 드러나는 직설적이고 분명한 저자의 의도를 지나치게 감각적 차원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신학적 특징임을 잘 드러낸다.

둘째, 사도적 기적과 신유의 재창조를 추구하는 복고주의적 (restorationistic)적 특징을 들 수 있다. 사도행전에 대한 철저한 문자적 해석은 오순절 운동의 태동기에 지배적인 접근 방법이었다. 그 결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세례를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 할 방언으로, 다양한 가시적 은사들도 지금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기적과 신유의 기초로 이해되어졌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실현시키실 것이라는 일종의 보장 (guarantee) 또한 성경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⁵⁾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적과 신유를 행하실 수 있음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13-9.

3) Donald Dayton, *Theological Roots of Pentecostalism* (Peabody, MA: Hendrickson, 1979).

4) Samuel Y. Lee, *Grace and Power in Pentecostal and Charismatic Theology* (Apeldoorn: Theologisch Universiteit Apeldoorn, 2002), 235-7.

5) J. I. Packer,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217-9.



반드시 사도행전의 방식대로 이들을 행하셔야만 한다는 것은 그의 신적 자유에 사실상 인간적 족쇄를 채우는 것과 다름 없을 뿐이다.

셋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역을 위한 성령의 능력을 이원화하는 구원론적 특징을 들 수 있다.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은 성령세례의 체험적이며 가시적 측면에 대한 특이한 강조의 결과로 성령의 독자적 사역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별도로 새로운 교리에 대한 성령론적 조명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전통적 성령론에 대한 재고를 의미하였다. 구원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지닌 상관관계를 이원화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능력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⁶⁾ 전통적 삼위일체론적 입장에서 살펴볼 때 이러한 이원화는 “외부 세계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opera trinitatis ad extra sunt indivisa*)”라는 경륜적 삼위일체론의 기본 명제를 거스리게 된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떠난 성령의 독자적 사역이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음이 전통적 삼위일체론의 귀결이기도하다.

3. 신론의 신학적 역할과 중요성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세 가지 신학적 특징에 대한 고찰과 평가는 신학에 있어서 신론의 위치와 중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과 교회가 지닌 신앙이 신앙고백을 통하여 문서화되며 교리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적인 견해나 신비주의적 환상을 배제함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신학에 있어서 해석학적, 복고주의적, 그리고 구원론적 문제는 사실상 신론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성경의 증거에 근거한 올바른 신론은 신학의 전체적 흐름과 방향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한 교리나 사상을 지나치게 신봉하는 불균형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서 올바른 신학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경우에 성령론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결과론적으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 사이에 이원화를 초래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위한 예비 단계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또 다른 종속론을 가져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해소는 사실상 올바른 신론없이 불가능하다. 신론, 특히 올바른 삼위일체론에서 이러한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칼 바르트 (Karl Barth)는 자신의 신학을 그리스도 중심적 (Christocentric) 또는 그리스도 일원론적 (Christo-monistic)으로 펼친 대표적인 신학자이다. 그는 자신의 신학에 있어서 성령론을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여겼는데 이는 많은 비판가들의 표적이 되어왔다.⁷⁾ 그가 지닌 신학적 탁월성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취약점들이 그의 신학에서 나타나게 되었을까? 이는 그의 신론 자체가 지닌 문제점에서 발견되어진다. 삼위일체론에서 발견되는 양태론적 경향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일종의 반복으로 보았으며 그 결과 그의 신학에서 성령론은 사실상 기독교에 흡수되는 형태로 발전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평가된다.⁸⁾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은 성령론에 대한 특이한 강조와 집중의 결과로 신론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위험성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는 신론, 특히 삼위일체론에서 마땅히 다

6) Lee, *Grace and Power*, 120-1, 244.

7) Friedrich Wilhelm Kantzenbach, *Programme der Theologie: Denke, Schuler, Wirkungen Von Schlermacher bis Moltmann* (Munche: Claudis, 1984), 196-201.

8) Stanley Grenz & Roger Olson, 『20세기 신학』, 신재구역 (서울: IVP, 1997), 110-1, 118.



투어져야 할 성령론에 대한 기초와 방향설정이 결여되어질 수 있다. 이는 성령의 인격을 논함이 사실상 그의 사역을 독자성을 드러내기 위한 예비 또는 기초작업으로만 여겨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성령 사역의 독자성은 교리사 (history of doctrine)적 입장에서 살펴볼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리에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여겨지는 필리오케 논쟁(filioque controversy)에서 비롯되었다.⁹⁾ 이 논쟁을 통하여 동방교회에서는 필리오케가 부인되었으며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별도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 정교 (Greek Orthodox Church)와 동방신학의 경우 신격화를 포함하는 신비적 체험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¹⁰⁾ 둘째, 신론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 자체에 대한 이해를 성령론적으로 대치하려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사역으로만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 예정, 창조, 섭리등을 포함하는 신적 사역을 신학적 성찰과 논의의 대상에서 포함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성령의 독자적 사역을 강조하여 이를 신학 전체의 핵심으로 삼게 되어 삼위일체론의 기본적 개념, 즉 외부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는 대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은 성령 중심적 (pneumatocentric) 신학으로 흐를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신론은 명목적으로는 신론으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론에 흡수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4.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신론

먼저 고전적 오순절 운동 (the classical Pentecostal movement)이란 일반적으로 1906년의 아주사 부흥운동에서부터 시작하여 1960년에 이르기까지의 오순절 운동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초기 오순절 운동 (early pentecostal movement)은 파함과 시모어가 활동하였던 오순절 운동의 태동적 시기를 가리키는 데 시기적으로 시모어의 활동이 거의 중단되는 1911년까지로 정리되어질 수 있다. 고전적 오순절 운동이란 용어는 사실상 오순절 운동이 은사주의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기존의 교회들과 동화되어 나간다는 관점에서 오순절 운동의 원래적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1911년 이후에 오순절 운동은 파함과 시모어의 주도하에 형성되어진 감리교적 성격과 성화운동 (the Holiness Movement)의 특징을 강조하는 교단들이 창설되었으나 오순절 운동의 대표적 교단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¹¹⁾ 1914년에 침례교적 특징을 더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회 (the Assemblies of God)라는 새로운 교단이 창립되었으며 이 교단은 미국의 오순절 운동의 장자교단으로 위치를 굳혔다.¹²⁾ 고전적 오순절 운동이 강조해 온 체험 위주의 신앙 패턴이 오순절 운동의 사상과 교육에 있어서 교리의 중요성을 간과하도록 유도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반교리적 분위기가 1930년에 이르기까지는 지배적이었으며 이는 새롭게 교단이 형성되어서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제 1세대들은 새롭게 형성되는 자신들의 교회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신학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conservative)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

9) Adolf von Harnack, *History of Dogma* (New York: Russell & Russell, 1958), Vol. 4, 133, 317; Vol. 5, 302-5.

10) Vladimir Lossky, *The Mystical Theology of the Eastern Church* (Crestwood, NY: SVS PreS Press, 1998), 167, 174; J. van Genderen & W. H. Velema, *Beknopet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Kok, 1993), 156.

11) 19세기의 복음주의적 성화운동의 특징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교회 (The Churches of God) 가운데 The Church of God in Christ는 주로 미국 남부지역에서 교세를 확장하였으며 대부분의 교인들은 흑인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14년에 결성되어진 하나님의 성회는 주로 백인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었다. Vinson Synan, *The Holiness-Pentecostal Tradition: The Charismatic Movements in the Twentieth Century* (Grand Rapids: Eerdmans, 1997), 68-83, 153-6.

12) William W. Menzies, *Anointed To Serve: The Story of the Assemblies of God* (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1971), 80ff; Edith L. Blumhofer, *Restoring the Faith: The Assemblies of God, Pentecostalism, and American Culture* (Urbana/Chicago: Univ. of Illinois Press, 1993), 113-163.



되어진다.¹³⁾

(1) 메이어 펄만 (Myer Pearlman)과 하나님의 성회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순절 운동의 여러 교단들은 초창기의 성령의 가시적 은사를 향한 열정이 교회의 제도적 안정이 확보되어지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순절 운동의 지속적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오순절 신앙에 걸맞는 교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제 2세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¹⁴⁾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회 소속 신학자인 마이어 펄만 (Myer Pearlman, 1898-1943)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에 해당된다.¹⁵⁾ 펄만은 1937년에 출판된 <기독교 교리의 이해> (Knowing the Doctrines of the Bible)에서 자신의 이전 세대를 특징지었던 반 교리적 경향에 맞서서 신학을 학문 (science)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⁶⁾ 태동기부터 오순절 운동 제 1세대는 상호간에 반목, 질시, 대립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신학의 추구는 제 2세대를 제 1세대로부터 구분짓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제 1세대의 신학적 보수주의를 그대로 이어받은 펄만은 논증과 논박을 통한 학자적 태도가 아니라 신학생들을 교리화하려는 평이한 서술형식으로 교리를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그의 신학은 전체적으로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교리에 대한 평이한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음이 그 특징에 해당된다. 이는 그가 신학이 논쟁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내적 신앙에 대한 입증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였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¹⁷⁾

그렇다면 그의 신론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 본질, 속성 그리고 삼위일체론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창조와 섭리를 포함한 신적 사역에 대하여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펄만의 전 세대들이 받아들이고 열광적으로 심취하였던 하나님의 전능성 (omnipotence)의 표현으로 주어졌던 기적, 신유 등의 주제들이 다루어져야 할 섭리 (providence)의 교리가 신론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음을 뜻한다.¹⁸⁾ 이는 고전적 오순절 운동이 전반적으로 기적, 신유 등에 대하여 맹신 혹은 과신하는 태도를 지니게 됨으로서 이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에 대한 양심적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가 신학을 신앙에 대한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서술로 이해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인간의 이성을 거스르는 비합리적인 신적 행위들을 자신의 신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 1세대가 신앙의 체험에 근거하지 않은 주제들을 자신들이 다루어야 할 신학적 대상으로부터 제외시켜버렸던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라

13) 이러한 신학적 보수성에 대한 예외도 고전적 오순절 운동내에서 발견되어진다. 하나님의 성회가 결정되어지던 1914년 바로 그 해에 “오직 예수” (Jesus Only)라는 명칭으로 전통적 삼위일체론을 부인하며 유니테리안적 신론을 옹호하여 따로 결성되었던 ‘유일신 오순절 운동’ (Oneness Pentecostalism)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의 삼위일체론의 부인에 대한 평가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Gregory A. Boyd, *Oneness Pentecostals and the Trinity* (Grand Rapids: Baker, 1992); Amos Yong, *The Spirit Poured Out on All Flesh: Pentecostalism and the Possibility of Glob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204-13, 224-34. 이들은 ‘연합오순절교회’ (The United Pentecostal Church)라는 교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블룸호퍼 (Blumhofer)는 교리적으로 전통적 삼위일체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 운동이 강력하게 전천년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를 들어 오순절 운동의 주류에 해당된다고 평가하는 반면에 시닌 (Synan)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운동이 실제로 미국의 일부 지역, 즉 남부와 중서부에 국한되었으므로 전 세계적 오순절 운동의 흐름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하였다. Blumhofer, *Restoring the Faith*, 134; Synan, *The Holiness-Pentecostal Tradition*, 158-160, 163.

14) 이러한 제 2세대들의 신학을 스콜라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Douglas Jacobsen, "Knowing the Doctrines of Pentecostals: The Scholastic Theology of the Assemblies of God, 1930-55" in Edith L. Blumhofer et al (eds.), *Pentecostal Currents in American Protestantism* (Urbana/Chicago: Univ. of Illinois Press, 1999), 90-107.

15) 1953년에 3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집필되어진 Ernest S. Williams (1885-1981)의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도 다루어져야하나 자료의 희귀성으로 인해 다루지 못하게 되었다. Ernest Swing. Williams, *Systematic Theology*, 3 vols. (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1953).

16) Myer Pearlman, 『기독교 교리의 이해』 이희숙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1), 9.

17) Jacobsen, "Knowing the Doctrines of the Pentecostals", 94. 펄만은 하나님의 존재와 삼위일체론을 다룸에 있어서 논리적 증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Pearlman, 『기독교 교리의 이해』, 28-41, 69-71.

18) 펄만이 천사론을 자신의 저서에 포함시킨 이래로 그의 모든 오순절 계통의 조직신학 저술들은 천사론을 신론에 포함시키지 않고 또 다른 장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Pearlman, 『기독교 교리의 이해』, 75-93.



고 판단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론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법은 하나님의 불가해성(incomprehensibility)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신적 신비 (mystery)라는 중요한 요소에 대한 어떠한 학문적 고찰도 간과되어질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헤르만 바빙크 (Herman Bavinck)는 하나님의 속성을 논함에 있어서 이 불가해성의 문제를 놓고 씩씩하면서 이 교리가 어떻게 불가지론 (agnosticism)과 구별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하기도 하였다.

삼위일체론 또한 명료성과 입증 가능성을 교리의 논리적 전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기에 성령의 독자적 사역이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신격내에서 가능한가를 보여줌으로서 성령세례라는 오순절 운동만의 독특한 교리의 정당성을 입증함에 있어서 필요한 교리적 기초를 놓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단지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함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⁹⁾

메이어 필만의 신론은 그 대중성과 접근성에 있어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저서에서 분명히 드러난 바로는 필만의 신학이 오순절 신학만이 지닌 고유한 교리를 이끌어내려는 신학적 시도에 신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개신교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평이하게 서술함으로써 근본주의적이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주의적인 색채가 더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⁰⁾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신론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경향은 1970년에 발간된 하나님의 성회 소속의 신학자인 윌리엄 멘지스 (William Menzies)의 교리 개요서인 <Understanding Our Doctrine>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²¹⁾ 즉 하나님의 사역이 신론에서 결여되어 있으며 그 결과 창조와 창조와 섭리라는 교리 자체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필만의 접근방식을 수정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깊이 연관되어지는 기적과 치유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전능성은 ‘모든 힘을 지닌 존재의 속성’이라고 간략하게 정의되어진다.²²⁾ 아울러 전능성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실 수 있는 힘으로 이해함으로써 이를 성육신의 사건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멘지스의 전능성 이해가 여기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필만과는 대조적으로 ‘신적 치유’ (divine healing)라는 제목하에 신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치유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멘지스가 치유를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이다 (출 15:26; 렘 8:22).²³⁾ 하나님을 ‘위대한 의사’로 묘사하면서 그의 본성으로서의 치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치유는 그의 특별한 사역, 즉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도 일어나는 치유의 현재성을 강조하므로 이를 그의 본성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치유라는 교리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해되어짐에 따라 더 이상 섭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음을 뜻한다.²⁴⁾ 이런 맥락에서 치유가 신론적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론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

19) Pearlman, 『기독교 교리의 이해』, 70.

20) 국내 번역판은 저자를 오순절 계통의 신학자로 소개하지 않고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평이하게 진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1) William W. Menzies, 『오순절 성경교리』, 총회 총무국역 (서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출판국, 1994).

22) 상계서, 62.

23) 상계서, 240-2.

24)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지혜, 능력, 그리고 선이라는 속성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I, xvi, i; Francis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Vol. 1 (Philipsburg, NJ: P & R, 1992), 491.



(2) 두필드/반 클리브(Duffield/Van Cleave)와 국제사중복음교회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 Square Gospel)

국제사중복음교회는 에이미 쉘플 맥퍼슨 (Aimee Semple McPherson)에 의하여 1923년에 시작된 고전적 오순절 교회들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²⁵⁾ 화려한 개인적 카리스마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게 된 맥퍼슨은 에스겔 1장에 언급되어진 4개의 체루빔에 근거하여 자신의 4중교리설을 주장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Savior)’, ‘성령으로서의 세례자 (Baptizer with the Holy Spirit)’, ‘의사와 치료자’ (Physician and Healer)’ 그리고 ‘다시 오실 왕 (Coming King)’이라는 사중 명칭으로 묘사하면서 이를 국제사중복음교회의 교리적 근간으로 삼았다.²⁶⁾

오랜 기간동안 이 교단에서 신학자로 활동해오던 두필드는 반 클리브와 함께 <오순절 신학의 토대>라는 조직신학 교재를 저술하였다.²⁷⁾ 두필드/반 클리브는 이 저작을 통하여 사실상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신학적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 평이한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곧 고전적 신론에 가장 근접하는 오순절 운동의 신론을 전개하려는 시도로 연결된다. 이들은 메이어 펄만의 전통을 이어 받아 하나님의 본성 (nature)을 논함에 있어서 그가 영 (Spirit)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다.²⁸⁾ 하나님이 영이라는 진리를 부정적/긍정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개혁주의 신학자 버스웰 (Oliver Buswell)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²⁹⁾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신론에서 배제되었던 1950년대 이전의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특징은 사라지고 신적 목적 (divine purpose), 창조와 섭리라는 주제들로 그의 사역이 다루어진다.³⁰⁾ 여기에서 신적 목적이란 전통적 교리의 예정 (predestination)에 해당되는데 두필드/반 클리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교리를 따로 설정하지 않음으로서 예정론에 대한 전통적 신론의 입장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예정과 신적 예지(divine foreknowledge)를 대립시킴으로서 자신들이 ‘임의적 예정’(an arbitrary predestination)이라는 용어와 동일시하는 이중예정(double predestination)을 부인하고 알미니안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³¹⁾ 예정론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감리교적 뿌리를 지닌 오순절 운동의 신학에서 흔히 발견되는 견해로서 사실상 이들이 주장하는 사중교리설이 개혁주의적 예정론과는 동떨어진 사고에 근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섭리의 교리에 있어서 두필드/반 클리브는 하나님의 특별섭리로서의 기적을 다루지 않지만 기적의 일부에 해당하는 신유 (divine healing)를 하나의 교리 (doctrine)로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³²⁾ 에이미 맥퍼슨에 의해 기록된 국제사중복음교회의 ‘신앙선언문’ (Declaration of Faith)을 직접 인용하면서 이 교리가 사중교리설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³³⁾ 신유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신유가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하여 고찰하기 에 앞서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신론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다.³⁴⁾ 앞서 언급된 신적 계획과 섭리를 논하는 신론에서는 신유에 대

25) 그녀의 전기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Daniel Mark Epstein, *Sister 'Aimee': The Life of Aimee Semple McPherson* (San Francisco: HBJ, 1994); Edith Blumhofer, *Aimee Semple McPherson; Everybody's Sister* (Grand Rapids: Eerdmans, 1993).

26) Cecil M. Robeck, Jr.,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in Stanley Burgess, et al (ed.),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461-463.

27) Guy P. Duffield & Nathaniel M. Van Cleave, *Foundations of Pentecostal Theology* (San Dimas, CA: L. I. F. E. Bible College Press, 1983).

28) Duffield & Van Cleave, *Foundations of Pentecostal Theology*, 56-57..

29) J. Oliver Buswell, *A Systematic Theology of the Christian Religion* (Grand Rapids: Zondervan, 1962), 30-36.

30) Duffield & Van Cleave, *Foundations of Pentecostal Theology*, 79-86.

31) 상계서, 80.

32) 상계서, 363-416.

33) 상계서, 363.



하여 어떠한 설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평가도 시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유론 (the doctrine of divine healing)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두필드/반 클리브가 주장하는 신유론의 특징은 신유를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성령의 사역으로 이해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기독교론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5. 은사주의 운동의 신론

오순절 운동은 어떤 계기를 통하여 기존의 전통적 교회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는가? 원래 오순절 운동은 전통적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로서 일종의 신학적 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906년의 아주사 부흥운동 이후 오순절 신앙을 근거로 한 많은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이 형성되었지만 하나님의 성회를 위시한 대다수의 교단들이 자신들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채 전통적 교회와의 관계를 성립시키지 못한 채 고립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오순절 운동이 이런 신학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하나님의 성회가 1942년 9월에 미국복음주의 협의회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선언문을 발표함에서 비롯되었다.³⁵⁾ 그리고 1950년대에 들어서자 데이빗 두 플레시스의 노력으로 오순절 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³⁶⁾ 이러한 두 가지 계기를 통하여 오순절 교회는 미국 내의 복음주의 교회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전통적 교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교회연합운동 (ecumenical movement)의 일원으로 환영받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기존의 전통적 교회내에서 성령세례를 상징하는 방언이 터져나오게 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전통적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자신들이 성령세례를 받았음을 시인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전통적 교회내에서의 오순절 운동에 대한 인식과 위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오순절 운동은 전통적 교회속으로 파고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시인하는 전통적 교회의 목회자들이 오순절 교단에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은 채 기존의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오순절 운동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는 소위 신오순절운동 (the Neo-Pentecostal Movement), 또는 은사주의 운동 (the Charismatic Movement)이 등장하게 되었다.³⁷⁾ 새로운 형태로 오순절 운동이 전개되어짐에 따라 오순절 운동은 그 신학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교단의 테두리를 벗어난 기도 모임 결성의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성령세례의 관점에서 이런 변화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주류를 이루었고³⁸⁾ 더 넓은 의미에서 근본주의에서 진보적 복음주의에로의 변화로 이해되어지기도 한다.³⁹⁾ 이러한 교회론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은사주의 운동의 신론은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전통 교회들의 교리들이 은사주의 운동의 신학적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실

34) 상계서, 372-274.

35) Menzies, *Anointed to Serve*, 182f.

36) David J. du Plessis, *The Spirit Bade Me Go: The Astounding Move of God in the Denominational Churches* (Oakland, CA: n. p., 1963).

37) Arnold Bittlinger (ed.), *The Church Is Charismatic: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Charismatic Renewal*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1978), 10; Henry L. Lederle, *Treasures Old and New: Interpretations of "Spirit-Baptism" in the Charismatic Renewal Movement* (Peabody, MA: Hendrickson, 1988), 37-45.

38) Lederle, *Treasures Old and New*, 55f. 신오순절운동에서의 성령세례란 더 이상 성령받음에 대한 초기 증거 (the initial evidence)로서 절대화되지 않으며 이를 개별 신자들의 위기의식에 대한 체험의 표현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오순절 운동이 내세우는 절대성이 상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9) Richard Quebedeaux, *The New Charismatics: The Origins,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f Neo-Pentecostalism* (Garden City, NY: Doubleday, 1976), 148-150.



제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런 신학적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장로교 출신의 대표적 은사주의 신학자인 로드만 윌리엄스 (J. Rodman Williams)의 신론을 살펴보고자 한다.⁴⁰⁾

윌리엄스는 1965년에 성령세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텍사스 (Texas)주에 위치한 오스틴 장로교신학교 (Aust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의 교수로 활동하였다. 그는 성령세례에 대한 체험 이후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는 가운데 자신이 신학을 ‘칼빈주의적 은사주의적’ (calvinistic charismatic)으로 접근한다고 주장하였다.⁴¹⁾

3권으로 저술되어진 <오순절/은사주의 조직신학> (Renewal Theology)은 자신의 체험적 신앙과 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집대성 되어진 윌리엄스의 평생의 역작이다.⁴²⁾ 칼빈주의적 신학의 구도를 지니고 있는 이 저서의 1권에는 그의 신론이 포함되어 있다. 윌리엄스는 서론에서 신학이 신중심적 (theocentric)이어야 함을 밝히고 신학이 지적 분야 (intellectual discipline)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⁴³⁾ 또한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데 이는 그의 칼빈주의적 신학 배경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여겨진다.⁴⁴⁾

그렇다면 윌리엄스의 조직신학에 드러난 신론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먼저 그의 신론의 구성을 살펴보면 하나님 (God), 삼위일체 (The Holy Trinity), 창조 (Creation), 섭리 (Providence), 기적 (Miracles) 그리고 천사 (Angels)라는 제목하에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전적 오순절 운동이 섭리와 기적이라는 각론에 대하여 전혀 다루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한 반면에 윌리엄스는 자신이 지닌 장로교적 배경을 중심으로 신론을 구성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윌리엄스가 자신에게 새롭게 다가온 오순절 운동의 성령 체험을 그가 원래 지닌 신학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급되어진 제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이라는 주제하에 그는 신의 속성을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첫째, 하나님의 초월 (transcendence)이라는 관점에서 살펴 본 속성은 사실상 전통적 신학에서 언급되어진 비공유적 속성 (incommunicable attributes)에 해당된다.⁴⁵⁾ 그러나 하나님의 성격 (character)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속성은 그의 도덕적 성격 (moral nature)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유적 속성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⁴⁶⁾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과 전개 방식은 루이스 벌코프 (Louis Berkhof)와 헤르만 바빙크 (Herman Bavinck)와 유사하며 윌리엄스는 자신의 신론 방향 설정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을 논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실존 자체가 인간의 영적 갈망을 채워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인간이 체험하기 위해서 신앙과 성령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우리 시대의 영적 부흥의 기류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감각을 증대시킨다는 사실과 연관시킨다.⁴⁷⁾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윌리엄스의 접근 방법은 자신

40) 윌리엄스의 생애에 신학 전반에 관한 이해로는 화란 아펠도른 신학대학 (Theologische Universiteit Apeldoorn)의 신학석사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된 저자의 줄고를 참고할 것. S. Y. Le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the Theology of J. Rodman Williams* (1997).

41) J. R. Williams, "Charismatische theologie: een calvinistisch-reformatorsche benadering," in *Och, ware het gehele volk profeten!* Charismatische-theologische teksten gekozen, vertaald en ingeleid door Jean-Jacque Suurmond (Zoetermeer: Boekencentrum, 1992), 119-134.

42) J. Rodman Williams, *Renewal Theology*, 3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8-1992). 한세대학교 출판부에 의하여 『오순절/은사주의 조직신학』이라는 제목으로 2001-2년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하였다.

43) Williams, *Renewal Theology*, Vol. 1, 16.

44) 상계서, 28, 79-81.

45) 상계서, 55f.

46) 상계서, 59f.



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실존주의 (existentialism)에 대한 반발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성령세례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실존주의에서 주장하는 ‘어두움 속에서의 도약’ (leap in the dark)이 참된 신앙의 본질과는 다르다고 이해하였다. 신앙이란 ‘굶주린 인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God's gift to the hungry human heart)이라고 밝히면서 이의 실존주의적 해석을 멀리하였다.⁴⁸⁾ 따라서 윌리엄스에게 신의 현존은 인간의 실존적 필요에 응답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awareness)에 관한 것이다. 이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주어진 결과로 성령 부흥 운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은사주의 운동과 동일시하고 있다. 즉 이전에는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시며 심지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던 사람들이 그의 임재 (presence)를 갑자기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어 자신의 주위의 모든 것들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적 실재를 경험하는 현상이 곧 자신이 체험하였던 성령세례의 결과라고 주장한다.⁴⁹⁾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러한 강조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시는 인격적인 존재이며, 그리고 그가 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정체성과 동일시하고 있다.⁵⁰⁾

이런 측면에서 그의 신론은 하나님의 임재와 초월을 논함에 있어서 사실상 그의 임재라는 개념을 더욱 강조하는 신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세기 신학의 전반적인 흐름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현상으로 진단되어질 수 있다. 칼 바르트 (Karl Barth)가 신의 전능성과 초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신학자이었다면 1960년대 이후에 신학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성령론은 많은 신학자들에게 신의 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⁵¹⁾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윌리엄스의 신론은 신의 임재와 이를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측면을 강조함에 있어서 성령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 신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그의 조직신학 제 2권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⁵²⁾

그는 자신의 체험과 일치하는 신학을 추구하기 위한 한 측면으로서 조직신학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가장 중요시하여야 하는 신학적 이유를 성령 사역의 독자성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성령 사역의 독자성을 윌리엄스는 무엇에 근거하여 펼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삼위일체론에서 발견되어진다. 그의 삼위일체론은 외형적으로는 전통적 유신론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 분 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 가지 위격을 지니고 계신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드러난다. 윌리엄스는 먼저 신격 (Godhead)내의 모든 위격들 (persons)이 동일한 본질 (essence)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하나님이라는 전통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한다.⁵³⁾ 그러나 신격 내의 각 위격들이 서로 구별되어진다는 진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이와 연관된 또 다른 진리가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으며 여기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윌리엄스의 삼위일체론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각 위격은 그 자체로서 본질의 모든 것에 해당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위격은 개별적 독자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개별 위격이 지닌 독자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⁵⁴⁾ 각 위격이 지니

47) 상계서, 47-48.

48) 상계서 48. 실존주의와 기독교 신앙과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그의 입장에 대한 이해로는 윌리엄스의 아래 저서를 참고할 것. *Contemporary Existentialism and Christian Fait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5).

49) J. Rodman Williams, *The Era of the Spirit* (Plainfield, NJ: Logos, 1971), 10.

50) Williams, *Renewal Theology*, Vol. 1, 48-55.

51) 신의 내재성을 강조한 성령론적 신론을 내세운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로는 폴 티리히 (Paul Tillich)를 들 수 있다. 그는 성령에 의하여 사로잡히는 현상을 엑스타시 (ecstasy)로 표현하고 있다.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3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51), 111-112. 티리히의 신의 내재에 관한 주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스탠리 그랜즈 & 로저 올슨, 『20세기 신학』 (서울: IVP, 1997), 196-201.

52) 제 2권은 구원론을 다룬 후에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하여 200페이지 이상을 할애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면은 성령의 독자적 사역에 해당된다.

53) Williams, *Renewal Theology*, Vol. 1, 90f.



고 있는 독자성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더 나아가서 각 위격에 고유한 성질들 (properties)로 이해되어진다.⁵⁵⁾ 윌리엄스의 신적 위격 (person)과 본질 (essence)에 대한 이해는 위격 그 자체를 전체로서의 본질로 파악하려는 경향 때문에 위격들이 상호간에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전통적 삼위일체론이 지닌 이해와는 상이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전통적 삼위일체론은 위격의 구분과 함께 이 위격들이 동일한 신적 본질을 공유함으로써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이해하였다. 이를 전통적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상호점유' (perichoresis)라고 부르는데 각 위격들은 서로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으로서 동역하시게 된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윌리엄스는 삼위 하나님 내의 각 위격들에게 이들에게 고유한 위격적 성질들 (properties)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위격이 지닌 이러한 고유한 성질들은 사실상 각 위격의 독특한 사역으로 나누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⁵⁶⁾ 즉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성자의 사역은 성육신,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그의 오심으로 이해되어졌다. 이는 성령의 사역을 성화 (sanctification)로 파악하였던 전통적 삼위일체론 이해와는 다른 개념이다. 여기에서 그의 오심은 지속적 오심 (recurrent coming)을 가리킨다고 보았다.⁵⁷⁾ 이를 통하여 윌리엄스는 성령의 사역이 다른 위격들의 사역과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독자성은 성령에 대한 체험에서 입증된다고 보았다. 즉 창조와 성육신, 그리고 성령의 오심은 각 위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으로서 모두 한 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속한다고 이해하였다.⁵⁸⁾ 이러한 사역에 어떻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있다. 이는 사실상 신적 내에서의 사역 (work)을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칼빈은 이러한 구분이 삼위일체론의 전체적 가르침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⁵⁹⁾ 칼빈은 이러한 구분을 용인하지 않고 경륜적 삼위일체 (economic Trinity)라는 전통적 개념으로 이를 이해하였다. 그렇다면 윌리엄스의 삼위일체론이 어떤 측면에서 칼빈을 비롯한 전통적 삼위일체론과 다른가? 먼저 윌리엄스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은 어디까지나 신적 본질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지만 칼빈은 이러한 연합은 하나님의 본질 차원이 아닌 경륜 (economy)이라는 용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윌리엄스에게 삼위 하나님의 연합은 위격들 사이에서 (suprapersonal) 이루어지는 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 위격들을 초월하는 초위격적 (superpersonal)인 것으로 이는 관계와는 상관없는 연합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러한 연합에도 각 위격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위격을 유지할 뿐 만 아니라 이들이 행하는 사역들 또한 독자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가 주장하는 성령의 독자적 사역, 특히 은사주의 신학의 독특한 성령론을 뒷받침하는 성령의 고유한 사역이란 개혁주의 삼위일체론의 가르침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판단되어진다. 이런 점에 있어서 윌리엄스가 내세운 성령의 오심이란 개념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사역한 결과로 주어지는 성화의 교리와는 동떨어진 개념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의 성령론은 사실상 기독교와 상관없이 전개되는 성령론으로 필리오케 (filioque)를 부인하는 동방교회의 전통적 가르침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⁶⁰⁾

54) 상계서, 92: "Each subsistence (or hypostasis) is the whole essence, and yet each retains its own distinction."

55) 상계서, 92.

56) 상계서, 93-94.

57)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윌리엄스의 조직신학 제 2권 8장을 참고할 것. Williams, *Renewal Theology*, Vol. 2, 181ff.

58) Williams, *Renewal Theology*, Vol. 1, 94.

59) Gerald Bray, *The Doctrine of God* (Downers Grove: IVP, 1993), 202.

60) 스위스 출신의 오순절 운동 연구가인 홀렌웨거 (Walter Hollenweger)는 오순절 운동의 삼위일체론을 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초기 저서들에서는 오순절 운동의 삼위일체론을 전통적 삼위일체론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90년대 들어서는 자신의 연구에 은사주의 신학의 결과들을 반영하여 오순절 운동의 성령론이 동방교회적인지 서방교회적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그는 대부분의 오순절주의자들이 전통적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칼빈주의적 성령론을 옹호한다고 이해하면서도 필리오케의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많은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자들이 이에 대하여 더 동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음을 다루고 있다. Walter J. Hollenweger, *The Pentecostals* (London: SCM, 1972), 311; idem, *Pentecostalism: Origins and Developments Worldwide* (Peabody, MA: Hendrickson, 1997), 218-227.

7. 평가 및 결론

초기 고전적 오순절 운동은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신학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하나님의 성회 소속의 신학자인 메이어 펠만의 기독교 교리해설서가 1930년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펠만의 교리해설서는 오순절 운동이 지닌 신학적 취약점들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사실상 쟁점이 될만한 요소들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린 약점들을 지니고 있다. 즉 오순절 운동에서 중요시 되어지는 기적은 섭리라는 신론의 한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마땅하지만 이에 대하여서는 침묵한 채 교리들을 서술함에 있어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평이성과 명료성을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음이 펠만의 신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신론에서 ‘입증’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어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1950년대에 들어서도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성회 소속 신학자들의 신론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윌리엄 멘지스의 교리해설서에도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나 있다.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한 지류를 형성하였던 국제사중복음교회 소속의 신학자들인 반 클리브와 두펠드의 조직신학에서는 창조와 섭리를 포함한 기적이 신론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펠만과 멘지스의 교리해설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는 요소들로서 오순절 운동의 신론이 더욱 전통적 신론의 기본적 형태에 접근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신학에는 또 다른 신론적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기적으로서의 신유를 기독교론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양성과 그의 사역을 마치 기독교론을 전개하듯 이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삼위일체론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삼위일체론에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주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으며 삼위일체론에서 의도적으로 기독교론적 요소를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강조를 통하여 신유의 주체가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은사주의 운동에서의 신론에 대한 고찰은 그 특성상 장로교적 배경을 지닌 윌리엄스라는 한 인물에 예 국한되었다. 윌리엄스는 자신을 칼빈주의적 은사주의자로 자칭하는 은사주의 신학자로서 자신의 조직신학적 구도에 있어서 특히 루이 벌코프와 헤르만 바빙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여겨진다. 그는 체험을 통하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현존의 하나님을 특히 강조하는데 이는 자신이 체험하였던 실존주의 철학의 문제점에 대한 반발일 뿐 아니라 성령세례라는 새로운 체험에 대한 신론적 해석임이 분명하다. 그는 하나님의 본성과 위격을 구분하는 고전적 삼위일체론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개혁주의적 전통에 충실한 신론을 전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의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의 개별 위격들의 연합을 위격들간의 (suprapersonal) 연합으로 보지 않고 초위격적인 (superpersonal) 연합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근거한 삼위일체론에 해당된다. 이는 윌리엄스가 각 위격들의 사역들을 지나치게 독자적인 것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하였는데 이 점에 있어서 특히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상관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성령론, 구체적으로 성령의 사역이 성화 (sanctification)가 아니라 그의 오심이라는 독특한 교리가 전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삼위일체론이 서방신학 보다는 필리오케 (filioque)를 부인하는 동방신학의 삼위일체론에 더 근접하려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 (example)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⁶¹⁾

결론적으로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은 초기 형태의 출발에 있어서 성령세례라는 새로운 교리의 체험을 통한 성령론에 대한 강조의 영향으로 신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 1930년

61) 이에 대한 토론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다음을 참고할 것. Gerald T. Sheppard, "The Nicene Creed, Filioque, and Pentecostal Movements in the United States," *Greek Orthodox Theological Review* 31, nos. 3-4 (1986): 401-16.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대의 펼만에서 1970년대의 멘지스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회의 신학에 있어서 신론적 특징은 보수적이면서 동시에 상당히 평이하고 명료한 하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였으나 기적과 신유 등의 중요한 교리들에 대한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사실상 성령론에 그 주도적 역할을 내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중복음교회 소속의 반 클리브/두필드가 창조, 섭리, 신유를 포함하는 신론이 도출됨으로서 더욱 전통적 신론의 형태에 근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윌리엄스로 대변되어지는 은사주의 운동의 신학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신론, 특히 삼위일체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필리오케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